

NEWS LETTER

2021년 11월 08일 Vol. 422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지원 유공자 감사패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0월 29일 고양시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지원 유공자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 수상은 10월 30일 예방접종센터 운영 종료에 맞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의료진 지원을 비롯해 센터 운영에 도움을 준 20개 단체 및 개인 의료진의 격려와 예우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수상식에 참석한 권범선 병원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고양시에서는 재택치료를 준비 중이다”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지역사회 기여하겠으며 이를 통해 병원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기관·단체 및 개인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내분비내과 이승은 교수, 대한당뇨병학회 구연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내분비내과 이승은 교수가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주관하는 국제심포지엄 ‘2021 International Congress of Diabetes and Metabolism’에서 프레지덴셜 구연상(Presidential oral presentation award)을 수상했다.
이번 학회에서 이승은 교수는 내분비내과 김경아 교수(교신저자), 최한석 교수(공동연구)와 함께 ‘당뇨병성 신병증 상태에 따른 심부전증의 위험 연구(The risk of heart failure according to the diabetic kidney disease status in the Korean population)’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당뇨병 환자중 신기능 저하가 있거나, 신기능 저하는 없더라도 단백뇨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심부전증으로 인한 입원율이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을 확인했다.
이승은 교수는 “국내 인구 고령화로 앞으로 당뇨병과 관련된 합병증은 국민 건강에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단백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심장질환 뿐 아니라 심장질환의 이환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병원발전을 위한 ‘동심 1·3·5’ 기부 캠페인 진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1월 1일 병원 1층 로비에서 병원 발전을 위한 ‘동심 1·3·5’기부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매월 1만원, 3만원, 5만원의 정기적인 소액기부를 통해 동국대학교병원의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부 동참 방법은 원내에 비치된 리플렛 약정서 작성 후 모금함 접수 및 대외협력홍보팀 메일(hongbo@dumc.or.kr)접수 또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기부 감사 이벤트로 선착순 50명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편, 기부를 통해 마련된 소중한 기금은 생명 가치 실현을 위한 진료, 연구, 교육 등 동국대학교병원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심행 완화의료센터, 간호사를 위한 100일 기념식 진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심행 완화의료센터는 지난 10월 22일 호스피스 병동에서 간호사들을 위한 100일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번 이벤트는 호스피스 병동에 발령된 지 100일이 되는 간호사들의 노고를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기석 행정처장을 비롯해 지도법사 능지스님, 병동 간호팀 윤효영 팀장이 참석해 간호사들을 축하했다.
호스피스병동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써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에게 돌봄을 통해 함께 하는 것에 책임감과 보람을 느낀다”며 “더 나아가 환자는 물론 환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